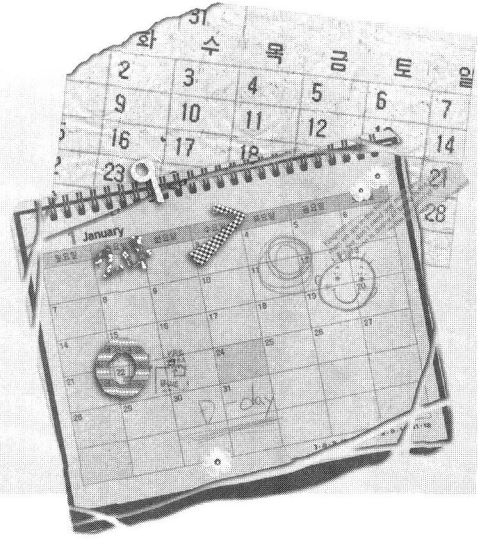


4월의 사양관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일반 사양관리

봄 철에는 점차 날씨가 따뜻해지고, 특히 4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황사가 유입되는 시기이므로 가축의 건강과 방역에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다. 방역 계획을 수립·점검해 보고 매주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시기적으로 청예사료를 확보하여 급여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주변의 청초를 수확하여 이용하되 청예사료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1~2주에 걸쳐 사료를 천천히 변경하여 급여함으로써 젖소가 사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실시한다. 봄철은 분만이 많은 시기이므로 젖소의 전반기 사양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대사성 질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분만 후 비유초기 산유량 증가에 따라 부족되는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하여 체중감소로 인한 번식장애 및 케토시스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러나 비유초기에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후사료 위주로 다량 급여할 경우 급격한 반추위의 pH 저하로 산중독증과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적절하게 조:농비가 유지되도록 하거나 반추위 내 pH를 조절할 수 있는 완충제의 급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신우의 신체중실지수를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분만전후에 다양한 대사성 질병의 발생을 줄이고, 사료섭취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사양관리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봄철에 발정이 제일 많고 수태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번식관리에 유의하고 번식 상황을 철저히 기록하여 활용함으로써 번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분만실의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개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며, 분만실은 깨끗한 깔짚을 깔아 주어 생산된 송아지와 분만한 어미소가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어난 송아지는 생후 1~2주 사이에 전기 제각기나 약품을 사용하여 제각을 실시한다. 우유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산유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사양관리 보다는 적정 산유량과 번식에 초점을 맞춘 적정 영양관리가 더 중요하다. 주변의 여러 가지 값싼 농산부산물이나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나오는 식품가공부산물을 이용하여 조사료 대체효과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TMR 급여농가의 경우 외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사조를 깨끗이 청소하여 사료의 기호성을 잃지 않도록 해 준다.

번식관리

분 만 후 발정 발현이 많은 시기이므로 발정발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정상적인 소가 번식장애우로

되어 도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고능력우는 발정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정발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정발견을 할 경우에는 관행적인 육안에 의한 관찰보다는 발정관찰 보조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부분의 발정관찰 보조기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장 여건에 맞는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무인 발정알림이는 발정발견 정확도가 85.7%이고, 수태율이 75.0%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발굽장애나 유방염과 같은 스트레스는 발정생리와 수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우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

을 개선하여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우유 생산량, 수태율이 향상되고 체세포수도 낮아지게 된다. 또한 번식관리 중에서도 기록관리는 매우 중요한 관리 중의 하나로써 분만예정일, 건유일, 재발정예정일 등을 미리 예측하여 세심한 관찰과 함께 그것에 맞는 작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전광판식 번식관리시스템>은 발정, 분만, 건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체의 번식관리는 물론 기록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착유관리

고 품질의 우유생산을 위하여 착유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꼭 실행하도록 한다. 첫째, 착유 전에 항상 착유기의 압력과 맥동수를 점검한다. 둘째, 유두세척 수건은 반드시 한 마리당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셋째, 유두세척 후 마른 수건으로 건조시킨 다음 1분 이내에 착유기를 부착한다. 넷째, 착유기 제거 즉시 유두침지를 실시한다. 다섯째, 착유한 원유는 빠른 시간

내에 냉각시킨다. 여섯째, 위생관리를 위해 유방주위의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준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CMT나 체세포수 검사를 실시한다. 여덟째, 비타민 E, 베타케로틴 등을 정기적으로 급여함으로써 체세포수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매일 유두 침지액은 새롭게 만들어 사용한다.



조사료 재배관리

여 림철에 재배하는 대표적인 사료작물인 옥수수는 알곡과 줄기 및 잎 전체를 사일리지로 만들어 사료로 이용함으로 사료가치가 높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우수하여 사료작물의 왕이라 할 수 있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사료용 옥수수의 파종적기는 4월 25일경이며, 파종적기에서 늦어지면 수량이 점차 감소하므로 1모작은 늦어도 5월 5일까지, 2모작은 5월 20일까지 파종을 마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이 파종시기가 중요한 것은 옥수수 재배시 발생할 수 있는 옥수수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 발생도 4월 23일~5월 초 파종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나 청보리와 같은 월동사료작물을 수확하고 옥수수를 파종하는 2모작 재배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파종을 하고 늦어도 5월 20일 전에 파종을 해야 생산성의 감소를 줄이고 검은줄오갈병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벼 대체 사료작물로 논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할 때는 물 빠짐이 좋은 논을 선정하

고, 장마철에 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가 중요하며, 파종부터 충분한 시비관리를 해 줄 것을 권장한다. 봄철 가뭄에서 사료작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압'이며, 이른 봄에 사용할 옷거름을 가축분뇨 액비로 사용하면 비료효과와 관수효과를 동시에 얻어 수확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토양 개선 효과도 있다.

동계사료작물은 생육이 시작할 때 영양분이 필요하므로 월동 후 충분한 옷거름을 줘야 조사료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비료를 주는 시기가 너무 이르면 이용효율이 감소하고, 너무 늦으면 생육이 늦어져 수량이 감소하며 수확시기도 늦어진다. 또한 땅이 녹기 시작할 때 땅을 눌러 주면 서릿발에 의해 솟구쳐 올라있던 뿌리가 토양과 밀착되어 봄철 건조피해를 방지하고 생육이 촉진된다. 이는 또한 뿌리가 잘 자라 가지치기를 촉진시켜 생산량을 10% 이상 높일 수 있다. (☞)